



Europe

파리지사

식품의 주원료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법규 채택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EU 시행규칙

가공식품 주원료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식품 원산지 라벨링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구매착오를 일으키거나 원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2018년 5월 28일, 유럽연합(EU)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775를 채택했다. 이 법규는 식품의 주원료 라벨링에 관한 규정인 Regulation (EU) No 1169/2011 제26조 제3항의 적용을 위한 세부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① 식품 주원료 라벨링 규정 Regulation (EU) No 1169/2011 제26조 제3항

식품의 주원료 라벨링에 관한 규정인 Regulation (EU) No 1169/2011 제26조는 식품업체는 식품의 원산국을 표기해야 하며, 식품의 원산국과 식품 주원료의 원산국이 다른 경우에는 식품 주원료의 원산국을 표기하거나 주원료의 원산국이

식품의 원산국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제26조 제3항)

이 규정은 '원산국' 및 '주원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원산국** : 한 국가나 한 지역에서만 생산된 상품, 소위 '완전 획득'된 상품들은 그 국가나 지역을 상품의 원산지로 간주하며, 상품의 생산에 관련된 국가나 지역이 둘 이상인 경우,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새로운 상품의 제조 또는 상품 제조의 중요한 단계 이행을 위한 실질적·최종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나 지역을 해당 상품의 원산지로 간주함.
- **주원료** : 식품 구성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의 이름과 연관 지어 인식하는 원료 또는 원료들.

②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775

식품의 주원료 라벨링에 관한 규정인 Regulation (EU) No 1169/2011을 보강하기 위한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775이 2018년 6월 1일 발효되어, 2020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식품 원산지와 주원료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의 주원료 원산지 라벨링 표기법을 규정하는데, 식품 원산지와 주원료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주원료의 원산국 또는 원산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다음의 지리적 구역 중 하나가 언급되어야 함

1. EU, 비(非)EU, EU 및 비(非)EU.
2. 국제공법에 의해 그와 같이 정의되거나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평균 소비자들에 의해 인정되는, EU 회원국들 내 또는 제3국들 내의 지역 또는 기타 다른 지리적 지역.
3. 국제공법에 의해 그와 같이 정의되거나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평균 소비자들에 의해 인정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어업 구역, 해양 또는 민물 구역.
4. EU 회원국(들) 또는 제3국(들).
5.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평균 소비자들에 의해 인정되는, 어느 EU 회원국 내 또는 어느 제3국 내의 지역 또는 기타 다른 지리적 지역.
6. 주원료 원산지를 적용할 수 있는 EU 특별 조항에 부합하는 원산국 또는 원산지.

• 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인용되어야 함

- (주원료명) (식품의 원산국 또는 원산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
- 또는 소비자가 상기의 문구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유사문구.

식품 원산지의 투명성 및 식품업체들의 유연성 담보

동시행규칙의 적용은 소비자들에게 식품 원산지에 대한 높은 단계의 투명성을 제공하며, 식품업체들이 식품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가공 방법을 고려하면서 식품과 주원료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의 주원료 원산지 라벨링 표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Key
Point

건강한 먹거리 생산국이라는 이미지 확보 중요

식품가공 산지나 식품원료 원산지에 대한 각국의 규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강하고 투명한 제배와 제조 과정을 거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해진 규정으로 인해 통관거부나 회수명령이 내려져 수출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건강하고 세심한 제조과정을 거치고 명쾌한 라벨링 작업을 완수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 www.sgs.com, eur-lex.europa.eu

